

생산직 기혼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및 관련요인

김 광 숙(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

목 차

I. 서론	V. 논의
II. 문헌고찰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V. 연구결과	영문초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첨단 산업사회에서 다양한 종류의 직업과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많은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김정희, 1999). 미국 근로자의 30%가 자신들의 건강을 가장 많이 위협하는 근로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들고 있으며(Shilling, Brackbill, 1987) 우리 나라 성인의 37%가 평소 대단히(6.7%) 또는 많이(30.0%)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하였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또한, 우리 나라 보건복지부가 201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민의 최우선 건강증진 목표로 선정한 5가지 건강생활습관 중 하나가 스트레스이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이거나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음주, 흡연, 약물남용 등과 같은 불건강한 행위를 초래하게 되고, 업무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어 직업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여 부정적인 직업관을 생성

하기도 한다(김남신, 문희자, 1992).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요구증대로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크게 증가하여서 15세 이상의 여성 경제활동인구 중 실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은 46.6%이며, 전체 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는 40.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3). 또한 여성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 가족의 사회화, 가족의 건강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이경혜, 1999) 개인의 건강문제에 그치지 않고 가족, 사회,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혼 여성근로자의 건강관리가 산업간호영역에서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나타나는 직무스트레스는 간호학 뿐 아니라 보건학, 사회학 등 여러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성근로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일부(박경아, 1997 ; 박순덕, 1994 ; 송영숙, 1996 ; 이종목, 1990 ; 정혜선 등, 2001 ; 홍경자 등, 2002)에 불과하다. 이들조차도 전문직 또는 사무직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허성옥 등(1996)의 연구에서 생산직 근로자들이 사무직 근로자들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생산직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산직 기혼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와 관련 요인을 확인하여 이에 관한 산업간호서비스의 내용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기혼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산업장 여성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간호사가 근로자의 요구에 맞는 상담 및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한다
- 2)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을 파악한다.
- 3)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직업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4)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가족적 특성을 파악한다.

II. 문헌 고찰

1. 직무스트레스와 개인적 특성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과 결혼상태는 많은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장세진 등(1997)은 40대 이하의 남자,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확인하였고, 송영숙과 이종목(1997)의 연구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영수(1990)의 연구에서는 여성, 이혼자, 고학력일수록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높았다.

건강관련 행위와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또한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이영수(1990)는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지각정도와 건강습관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는데 건강습관지수가 높을수록 남자에서는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낮아지는 경

향을 보였고 여러 연구에서 흡연(이영수, 1990 ; 장세진 등, 1997), 음주(김석환, 윤계수, 1998 ; 이영수, 1990 ; 장세진 등, 1997 ; Cooper, Russell, Frone, 1990), 수면시간(이영수, 1990) 등이 직무스트레스 지각 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개인적 요인 중 행동유형과 관련된 연구들이 최근 들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A형 행동유형을 가진 개인은 성급함, 상승된 경쟁심, 공격적인 의욕, 시간에 대한 만성적인 긴박감, 가끔씩 보이는 다소 적대적인 행위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A형 행동유형의 특성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B형 행동유형으로 명한다(Friedman, Rosenman, 1974). 송영숙과 이종목(1997)이 사무직 여성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A형 행동유형과 직무스트레스가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외국의 연구(Gamble, Matteson, 1992 ; Payne, 1988)에서도 A형 행동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이완기 혈압, 양적으로 과중한 업무부하량을 나타내고 주당 초과 근무시간, 정신적 주호소,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직무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들은 또한 스트레스성 사건과 최근의 생활변화 정도가 더 높았고 그들의 업무를 더 스트레스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직무스트레스와 직업관련 특성

먼저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로써, 미국의 여성법조인 584명을 대상으로 근무조건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조사한 Schenker, Eaton, Green, Samuels(1997)의 연구에서는 주당 45시간 이상 근무하는 여성그룹의 직무스트레스가 주당 35시간 이하 근무하는 여성그룹의 직무스트레스의 다섯 배를 기록하였으며 근무기간이 5년 이하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한편, 송영숙과 이종목(1997)이 국영기업체, 일반기업체, 그리고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무직 여성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요인을 조사한 결과, 근무 연수가 많아질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비교한 여성 근로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

한 연구 중 Roxburgh(1996)는 캐나다의 524명의 여성과 47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의 정도와 스트레스 취약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스트레스(distress)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가 여성의 스트레스(distress)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도와 동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또한 남성 근로자에 여성 근로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와 같이 여성 근로자는 스트레스 정도는 높으면서도 사회적 지지 및 업무조절 권한 및 통제력은 남성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스트레스 반응에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근무형태, 급여, 그리고 작업환경과 직무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자신의 업무와 월수입에 대해 만족한 군에서 낮은 스트레스 증상을 나타내었으며(김석환, 윤계수, 1998), 작업환경에 불만족인 근로자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장세진 등, 1997). 윤순영 등(1997)의 연구에서는 교대근무자, 급여가 낮은 군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혜선 등(2001)의 연구에서도 교대근무를 하는 군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대근무가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3. 직무스트레스와 가족관련 특성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족관련 변수와 비교하여 측정할 때는 많지 않다.

Lundberg 등(1994)은 회사일 및 회사일을 제외한 활동의 합으로 나타난 총 일의 양을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여성이 집안일과 아이돌보기 등에서 주요 책임을 지고 있으며, 남성에 비해서 일의 양, 스트레스, 갈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아이의 수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총 일의 양은 여자가 주당 69.3시간이었고 남자는 67.4시간으로 측정되었으며, 회사일을 제외한 활동(unpaid work)시간이 여자 30.9시간, 남자가 22.1시간으로 여자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혜선 등(2001)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학력

이 낮은 군에서, 자녀수가 많은 군에서 스트레스 증세가 많고 가사일에 대한 남편의 도움정도가 큰 경우에 스트레스 증세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총 수입 항목이 유의한 변수인 가족기능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증세가 낮아 가족의 수입이 간접적으로 스트레스 증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가진 간호사와 교사 294명을 대상으로 육아, 직장탁아 요구 및 스트레스를 조사한 박경아(1997)의 연구에서는 주간·교대 근무자 두 군 모두에서 비교적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정상적 자녀 교육이 어렵다'와 '개인 발전을 추구할 여건이 안된다'였으며 대상자의 67.7%가 직업을 포기할 생각을 가져보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직장을 포기하려 했던 이유로 96.0%가 '자녀의 정서 및 교육 문제가 걱정되어서'라고 답하였다. Roxburgh(1996)의 연구에서 자녀를 둔 기혼근로자 그룹에서의 비교에서도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가 자녀를 두지 않은 여성근로자, 자녀를 둔 남성근로자에 비해 스트레스(distress)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자녀, 특히 미취학 자녀의 존재가 여성근로자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와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서울시, 1개 광역시, 3개 도에서 10개 사업장을 선정 후 해당사업장에 고용된 생산직 기혼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근로자의 주요 업종은 전자조립, 공산품 제조 및 가공, 식품생산 및 포장, 포장재 가공 등이었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자료수집에 동의한 근로자에게 자기보고식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304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응답내용이 부족한 38부를 제외한 266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수집은 2003년 3월 31일부터 6월 28

일까지 실시되었다.

3. 연구도구

1) 직무스트레스

이종목과 박한기(1988b)가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직무스트레스 척도를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19문항으로 간추린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간호학 교수 4인과 보건관리자 6인에게 문항내용 및 구성의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화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종목과 박한기(1988b)의 조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0이었다.

2) 사회적 지지

Hagihara 등(1997)의 연구에서 사용된 상사의 지지와 동료의 지지에 관한 2문항과 이종목과 박한기(1988b)의 생산직 근로자용 직무스트레스 척도 중 사회적 지지 요인 및 가정 요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참조로 하여 상사, 동료, 가족, 친구의 사회적 지지 항목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한 7문항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측정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8이었다.

3) 행동유형

주부용 Framingham Type A 성격유형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한 이무식(1999)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치가 높을수록 A형 성향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 점수의 중위수(median)를 기준으로 A, B형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4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들은 부호화한 후 그에 따라 컴퓨터에 입력하고 입력된 자료를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PC+11.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 등의 연구변수의 분포는 기술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개인적·직업관련·가족적 요소와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는 t-검정 및 분산분석(ANOVA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로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1) 개인적 특성

대상자 연령의 평균은 39세로 최소 21세에서 최고 55세 이었으며, 40대가 102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41명(15.5%)으로 가장 적었다. 대상자 중 4명(1.5%)이 이혼하였고, 9명(3.4%)이 사별한 경우였다. 종교는 불교(29.3%), 기독교(19.5%), 천주교(5.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 168명(64.1%), 중졸이 49명(18.7%)이었다. 결혼한지 10~19년 된 경우가 105명(39.6%)으로 가장 많았고, 20~29년 된 경우가 73명(27.5%), 9년 이하인 경우가 69명(26.0%)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월수입은 83만 7천 원이었으며 최소 월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이었다.

건강관련 행위를 흡연, 음주, 운동, 평균수면시간으로 조사하였다. 흡연습관으로 215명(91.9%)이 담배를 피운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흡연하는 경우는 9명(3.8%)이었다. 대상자의 65.5%가 평소 음주를 하고 월 3회 이하(46.9%) 또는 주 1-2회(14.6%) 음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운동습관에 있어서는 주 2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는 17.0%이었고 177명(68.3%)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수면시간은 6.8시간이었으며 6시간(36.5%), 7시간(29.3%), 8시간 이상(25.5%)의 순이었고 6시간 미만인 경우는 23명(8.7%)이었다.

2) 직업관련 특성

대상자의 근무형태는 비교대 근무인 경우가 230명(87.5%), 2교대 근무자가 19명(7.2%), 3교대 근무

자가 14명(5.3%)이었다. 정규직 근무자는 197명(75.8%), 일용직이 38명(14.6%)이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종의 평균 근무기간은 4.6년이었으며, 2-4년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36.4%).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0시간 이상이 88명(34.0%), 45-49시간이 79명(30.5%), 44시간 이하가 92명(35.5%)이었다. 지난 1년간 집안일로 결근한 일수는 평균 4일, 몸이 아파서 결근한 일수는 평균 0.9일이었다.

3) 가족적 특성

동거가족은 부부와 자녀가 사는 경우가 175명(66.3%), 부부만 사는 경우가 44명(16.7%), 부부와 자녀 및 시부모가 사는 경우가 25명(9.5%)이었다. 동거가족 수는 4명(51.9%), 2명(18.6%), 3명(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을 둔 경우가 142명(53.6%), 1명을 둔 경우가 40명(15.1%), 3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32명(12.1%)이었으며 자녀가 없는 대상자는 38명(14.3%)이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대상자는 36명(13.6%)이었다.

가족전체의 월 평균수입은 248만원이었으며 최소 월 55만원에서 최고 550만원이었다. 대상자의 하루 가사노동시간은 2-4시간 미만인 132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8시간 이상인 경우도 26명(9.8%)이었다.

2.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최소 19점에 최대 65점, 평균은 40.8점으로 나타났으며, 문항별 점수에서 가장 높은 항목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나의 자율적인 판단보다는 조직의 규범에 따라야 한다'(2.86점)이었고 다음으로 '작업장의 소음때문에 작업에 방해를 받는 때가 있다'(2.73점)였다.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출신지 또

는 출신학교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1.42점)이었다.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하위범주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작업환경'영역(2.39)에서의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육구 및 가치'(2.23), '직무역할 갈등 및 모호성'(2.20), '책임과중'(1.89), '상사 및 집단'(1.81)영역의 순이었다(표 1).

3. 직무스트레스 관련 요인

1) 개인적 특성별 직무스트레스 비교

대상자 중 50세 이상의 연령 그룹과 결혼년수가 30년 이상인 그룹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월 급여액이 70만원 이상인 그룹이 70만원 이하인 그룹에 비해 직무스트레스가 낮았다. 대상자의 행동유형을 A형 행동유형과 B형 행동유형으로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A형 행동유형을 가진 그룹에서의 직무스트레스가 B형 행동유형을 가진 그룹에서의 직무스트레스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 월경전후기 불편감 유무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한 결과 월경전후기 불편감이 있는 그룹에서의 직무스트레스가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의 직무스트레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 대상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개인적 특성 중 건강행위 양상별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흡연과 음주 유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규칙적인 운동 여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흡연하는 그룹에서의 직무스트레스가 비흡연자의 직무스트레스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2$), 음주하는 그룹에서의 직무스트레스 또한 비음주자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표 2).

〈표 1〉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분포

(N=266)

변수	항목	평균	표준편차	범위	평균지수(4점 만점)
직무스트레스	19	40.8	8.84	19-65	2.15
작업환경	5	12.0	3.4	5-20	2.39
상사 및 집단	3	5.4	1.7	3-12	1.81
직무역할 갈등 및 모호성	5	11.0	3.1	5-20	2.20
책임과중	3	5.7	2.2	3-12	1.89
육구 및 가치	3	6.7	2.4	3-12	2.23

〈표 2〉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별 직무스트레스 비교

(N=266)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연령	39이하	136(51.3)	41.0	8.2	3.40	.04*
	40-49	102(38.5)	41.5	8.5		
	50세이상	27(10.2)	36.7	12.1		
교육수준	중졸이하	75(28.6)	39.7	9.4	-1.20	.23
	고졸이상	187(71.4)	41.1	8.4		
결혼년수	9년이하	68(25.6)	42.9	8.0	4.27	.02*
	10-29	178(67.2)	40.4	8.7		
	30년이상	19(7.2)	36.6	11.0		
월급여액	70만원이하	103(40.7)	39.3	9.5	-2.28	.02*
	71만원이상	150(59.3)	41.9	8.2		
행동유형	A형 행동유형	144(54.3)	43.0	8.3	4.63	.00**
	B형 행동유형	121(45.7)	38.1	8.7		
월경전후 불편감	있다	179(74.0)	42.1	7.9	3.63	.00**
	없다	63(26.0)	37.0	10.1		
흡연	한다	9(3.8)	47.3	8.9	-2.29	.02*
	안한다	225(96.2)	40.6	8.7		
음주	한다	169(65.5)	42.1	8.1	3.47	.00**
	안한다	89(34.5)	38.2	9.5		
규칙적인 운동	한다	44(17.0)	41.7	7.8	.68	.50
	안한다	215(83.0)	40.7	9.0		

주: 무응답 제외, *p<.05, **p<.001

〈표 3〉 대상자의 직업관련 특성별 직무스트레스 비교

(N=266)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근무형태	비교대	230(87.5)	40.0	8.8	8.32	.00**
	2교대	19(7.2)	42.5	8.3		
	3교대	14(5.3)	49.4	4.3		
고용형태	정규직	197(75.8)	41.1	8.9	1.15	.32
	비정규직	25(9.6)	41.0	5.6		
	일용직	38(14.6)	38.7	10.2		
직업의 안정성	불안정	96(36.6)	44.2	7.2	5.17	.00**
	안정	166(63.4)	38.9	9.1		
평균근무시간 (시간/주)	44시간 이하	92(35.5)	42.4	7.4	3.95	.02*
	45-49	79(30.5)	41.0	8.8		
	50시간 이상	88(34.0)	38.8	10.1		

주: 무응답 제외, *p<.05, **p<.001

2) 직업관련 특성별 직무스트레스 비교

근무형태를 비교대, 2교대, 3교대로 나누어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한 결과 세 그룹간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3교대 근무자 그룹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안정성 여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비교에서는 자신의 직업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에서의 직무스트레스가 안정된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룹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았다(p=.00). 1주

일 평균 근무시간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또한 상이하게 나타났다.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직무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3).

3) 가족적 특성별 직무스트레스 비교

초등학교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한 결과 미취학 자녀가 있는 그룹에서의 직무스트레스가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의

〈표 4〉 대상자의 가족적 특성별 직무스트레스 비교

(N=266)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p
가족월수입	200만원이하	37(16.7)	39.0	8.7	-1.20	.23
	201만원이상	184(83.3)	40.9	8.7		
미취학자녀 유무	없음	229(86.4)	40.2	8.6	-2.76	.01*
	있음	36(13.6)	44.5	9.5		
1일 가사노동시간	4시간미만	186(70.5)	40.5	9.2	-0.86	.39
	4시간이상	78(29.5)	41.5	7.9		
가정 휴식시간의 충분성	충분하다	132(49.8)	39.7	9.1	1.89	.06
	충분치 않다	133(50.2)	41.8	8.5		

주: 무응답 제외, *p<.05

〈표 5〉 직무스트레스와 주요 연구변수들간의 상관관계

(N=266)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0.467**
행동유형 지수 (A형 경향)	0.354**
월경전후 불편감	0.195**

*p<.05, **p<.01

직무스트레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1). 그리고 근무후 가정에서의 휴식시간이 충분하지 여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비교에서는 가정에서의 휴식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에서의 직무스트레스가 가정에서의 휴식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에서의 직무스트레스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가족 월수입과 1일 가사노동시간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4).

4.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사회적 지지와 음의 상관관계(r=-.467, p=.000)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강한 A형 행동유형 경향을 나타내는 행동유형지수와 직무스트레스 정도(r=.354, p=.000), 월경 전후기 불편감 증상의 합과 직무스트레스 정도(r=.195, p=.002)는 각각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A형 행동유형 경향이 강할수록, 월경전후기 불편감의 증상이 많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표 5).

V. 논 의

본 연구는 기혼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 및 관련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에게 필요한 산업간호 프로그램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기혼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하위범주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작업환경'영역(2.39)에서의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육구 및 가치'(2.23), '직무역할 갈등 및 모호성'(2.20), '책임과중'(1.89), '상사 및 집단'(1.81)영역의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의 문항이 수정 및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생산직 기혼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종목과 박한기(1988b)의 연구, 사무직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종목과 박한기(1988a)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육구 및 가치'영역의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았던 점과는 다소 다른 결과로 이는 생산직 기혼 여성근로자는 개인의 자아실현 및 사회적인 성공을 위한 목적보다는 가정의 수입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육구 및 가치'영역보다는 근무시간 중 직접 영향을 받는 '작업환경'영역에 더 관심을 가지는 이유 때문으로 여겨진다.

작업환경 영역과 직무스트레스는 밀접한 관련이 있

으며 특히, 심한 소음폭로수준과 유해한 작업환경은 스트레스와 정신장애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차봉석 등, 1989 ; O'Donell, Harris, 1994). 이명선(2002)은 작업장의 소음폭로 수준이 생산직 근로자의 스트레스 증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작업환경'영역에 해당하는 5개의 문항 중 '작업장의 소음 때문에 작업에 방해 받는 때가 있다'(2.78)가 가장 호소율이 높았으며 전체 문항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았다. 작업장의 소음관리는 중요한 사업장 건강관리 영역으로서 직업병 중 소음성 난청이 가장 높은 비율(노동부, 1998)을 차지할 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와 같이 근로자가 스트레스원(stressor)으로 인지하는 주요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음주자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영수(1990), 사무·생산·기술직을 대상으로 한 장세진 등(1997)의 연구에서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연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김석환과 윤계수(1998)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하였다. 김석환과 윤계수(1998)의 연구에서는 거의 매일 음주하는 근로자에게서 스트레스증상과 피로자각증상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술자리가 사회적 음주의 의미로써 사회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으로 사려된다. 한편, 사회적인 통념상 기혼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 경우 사회적인 음주보다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양상을 보일 수 있어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자에서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영수(1990), 장세진 등(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현재 흡연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5%에 불과하여 우리 나라 성인 여성의 흡연을 4.8%(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보다 낮았다.

행동유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A형 행동유형이 B형 행동유형에 비해서 유의하게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 대부분(송영숙, 이종목, 1997 ; 윤순영 등, 1997 ; Gamble, Matteson, 1992 ; Hagihara, et al., 1997 ; Payne, 1988)과 유사한 반면 기혼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정혜선 등(2001)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A형

행동유형을 가진 사람은 B형 행동유형을 가진 사람에 비해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가지며(Friedman, Rosenman, 1974 ; Rosenman, 1978) 자신의 직업을 더 스트레스로 인식한다(Dearborn, Hastings, 1987). 따라서 그들은 작업환경이나 자신의 정신적·신체적 상태를 B형 행동유형을 가진 사람과는 다르게 평가한다. 그러므로 행동유형에 따른 스트레스관리 전략을 차별화 하여 건강상담 및 계약 등의 간호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미취학 자녀를 가진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반면 미취학 자녀를 둔 36명의 양육방식은 회사밖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12명, 시댁 및 처가 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11명 등이었으며 회사 내 보육시설은 전혀 없었다. 대상 사업장들이 대부분 중소 규모인 이유도 있으나 유일영 등(1998)의 연구에서 가정탁아보다는 직장탁아 이용이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았던 결과를 고려할 때, 사업장 단위에서의 보육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사업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접지역의 여러 중소기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보육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으로 여겨진다.

월경전후 불편감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선행연구에서는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으로 여성근로자의 스트레스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월경전후 불편감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김정은(1995)은 "월경은 여성의 정신적, 성적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다양한 심리적 변화와 특별한 양상의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므로 월경불편감은 여성건강을 위해 반드시 많은 연구가 되어져야 하고, 월경불편감을 경험하는 여성들에게 건강교육, 정보제공, 운동처방, 식이요법 지도 등의 종합적인 자가간호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홍경자 등(1998)은 월경전후기 불편감을 가지고 있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교육 및 이완요법을 실시한 결과 월경전후기 불편감이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산업간호사는 월경전후기 불편감의 원인 및 관리방법에 관한 보건교육, 이완요법 및 운동 등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중재프로그램, 작업장 내 휴식공간 마련 등의 조직적 차원에서의 대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지와 직무스트레스는 비교적 높은 상관정도($r=-.467, p=.000$)를 보였으며 특히, 7개의 사회적 지지 문항 중 '나의 상사는 부하직원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의 문항이 가장 낮은 평가지수를 보였는데 이는 직장상사의 지지가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직 기혼 여성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건강행위 변화, 월경전후기 불편감 감소 등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관리방안 뿐 아니라 작업환경개선 및 보육시설확충 등의 조직적 차원에서의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생산직 기혼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정도와 관련요인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서울시, 1개 광역시, 3개 도에서 10개 사업장을 선정한 후 해당사업장에 고용된 생산직 기혼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2003년 3월 31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266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기혼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5개의 하위범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작업환경'영역에서의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높았다.
- 2) 개인적 특성 중 연령, 결혼년수, 월 급여액, 행동유형, 월경전후기 불편감, 흡연 및 음주 여부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3) 직업관련 특성 중 근무형태, 직업의 안정성, 근무시간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4) 현재 미취학 자녀를 둔 근로자 그룹에서 미취학 자녀를 두지 않은 근로자 그룹에 비해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
- 5)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사회적 지지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을 제언한다.

- 1) 기혼 여성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계획 및 적용이 필요하다.
- 2) 근로자의 건강행위 양상과 스트레스와의 구체적인 관계, 행동유형별 스트레스 인지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사업장 관리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상의 건강사업 진행과 복지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남신, 문희자(1992). 임상간호사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성민간호학회지, 4(1), 43-61.
- 김석환, 윤계수(1998). 연구직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피로에 관한 조사. 대한산업의학회지, 10(1), 105-115.
- 김정은(1995). Triangulation방법을 이용한 월경전후기 불편감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1999). 사회심리적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정. 대한간호학회지, 29(2), 304-313.
- 노동부(1998).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 박경아(1997). 미취학 자녀를 가진 취업여성의 육아, 직장태아 요구 및 스트레스.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덕(1994). 전문직 여성의 자아실현과 스트레스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영양조사(20세이상 성인) 부문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www.healthguide.kihasa.re.kr.
- 송영숙(1996). 사무직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중재변인-심리적 긴장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영숙, 이종목(1997). 사무직 여성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중재변인, 결과변인과의 관계. 대한심신스트레스학회지, 5(1), 16-30.
- 유일영, 이경자, 채선미(1998). 탁아방법에 따른 취업

- 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직업만족도 비교연구. 한국 모자보건학회지, 2(2), 159-169.
- 윤순녕, 전경자, 김춘미(1997).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분석. 산업간호학회지, 6(2), 79-95.
- 이경혜(1999). 여성건강과 남녀평등 문화. 여성건강간호학회지, 5(2), 237-244.
- 이명선(2002). 작업환경과 조건이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9(3), 107-120.
- 이무식(1999). 성격유형이 예방적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 -일부 농촌여성에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중심으로.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5(1), 53-64.
- 이영수(1990). 일부 산업장 근로자들에 있어서 스트레스 지각도와 건강습관과의 관련성. 예방의학회지, 23(1), 33-42.
- 이종목(1990). 여성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조직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공변량 구조모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종목, 박한기(1988a). 직무 스트레스 척도 제작에 관한 연구(I). 사회심리학연구, 4(1), 241-262.
- 이종목, 박한기(1988b). 직무 스트레스 척도 제작에 관한 연구(II). 전남대학교 논문집 <사회과학편>, 43-62.
- 장세진, 차봉석, 고상백, 강명근, 고상열, 박종구(1997). 직업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간의 관련성. 예방의학회지, 30(1), 129-143.
- 정혜선, 김혜영, 이현경, 이윤정, 권영숙(2001). 취업 여성의 스트레스 관련요인 및 대처전략에 관한 구조모형. 한국산업간호학회지, 10(1), 93-109.
- 차봉석, 장세진, 이명근, 박종구(1989). 산업장 근로자의 직업성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회지, 22(1), 90-101.
- 통계청(2003). <http://kosis.nso.go.kr/cgi-bin/SWS>.
- 허성욱, 장성실, 구정완, 박정일(1996). 사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를 이용한 사무직 및 생산직 근로자들에서의 스트레스 평가. 예방의학회지, 29(3), 609-616.
- 홍경자, 박영숙, 김정은, 김혜원(1998). 일부 여대생의 월경전후기 불편감에 대한 간호중재프로그램 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8(4), 821-831.
- 홍경자, 탁영란, 강현숙, 김금순, 박호란, 곽윤희, 김정은, 최정례(2002). 전문직 여성의 직무스트레스, 직업 만족도, 건강 : 간호사와 교사 그룹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32(4), 570-579.
- Cooper, M.L., Russell, M., & Frone, M. R.(1990). Work Stress and Alcohol Effects: A Test of Stress-Induced Drink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1, 260-276.
- Dearborn, M.J., & Hastings, J.E.(1987). Type A Personality as a Mediator of Stress and Strain in Employed Women. Journal of Human Stress, 1987:Sum, 53-60.
- Friedman, M., & Rosenman, R.H.(1974). Type A Behavior and Your Heart. Greenwich: Fawcett.
- Gamble, G.O., & Matteson, M.T.(1992). Type A Behavior, Job Satisfaction, and Stress Among Black Professionals. Psychological Reports, 70, 43-50.
- Hagihara, A., Tarumi, K., Miller, A.S., & Morimoto, K.(1997). Type A and Type B Behavior, Work Stressors, and Social Support at Work. Preventive Medicine, 26, 486-494.
- Lundberg U., Mardberg B. & Frankenhaeuser M.(1994). The Total Workload of Male and Female White Collar Workers as Related to Age, Occupational Level, and Number of Children.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35(4), 315-327.
- O'Donnell, M.P., & Harris, J.S.(1994). Health Promotion in the Workplace. Albany, New York: Delmar Publishers Inc..
- Payne, R.(1988). Individual Difference in the Study of Occupational Stress. In: Cooper C. L., Payne, R., editors. Cause, Coping

- and Consequences of Stress at Work. Chichester: Wiley, 209-232.
- Rosenman, R.H.(1978). The Interview Method of Assessment of the Coronary-Prone Behavior Pattern. In: Dembroski TM et al., editors. Coronary-Prone Behavior, pp. 55-70. New York: Springer-Verlag.
- Roxburgh, S.(1996). Gender Differences in Work and Well-Being: Effects of Exposure and Vulnerabil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7(September), 265-277.
- Schenker, M.B., Eaton, M., Green,R., & Samuels, S.(1997). Self-reported Stress and Reproductive Health of Female Lawyer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39(6), 556-568.
- Shilling, S., & Brackbill, R.M.(1987).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isks and Potential Health Consequences Perceived by US Workers. *Public Health Reports*, 102, 36-46.

ABSTRACT

Work Stress and Related Factors among Married Working Women in the Manufacturing Sector

Kim, Gwang Suk(Nursing Policy Research Institute,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ork stress and identify the various factors affecting stress in married women in working manufacturing industries.

Data were collected between March 31 and June 28, 2003 from 266 married women working in 10 manufacturing industries in Korea.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and work stres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Cronbach's alpha. SPSS/win 11.0 was used to assist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Scores for work stress in the field of 'work environment' was the highest of the five sub-categories
2. Perceived work stres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ge, length of marriage in years, salary, behavior type, discomfort related to menstruation, history of smoking and alcohol consumption, duty type, job stability, weekly work time and presence of young children in the family.
3.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work stress.

Accordingly, stress management for married working women will be more successful if interventions not only address each person's unique needs, for example, control of perimenstrual discomforts and health behavior change, but also are accompanied by organizational management strategies and policies, for example, improvement of work environment and nursery facilities.

Key words : Work stress, Married working women